

윤석열 정부, 아이들에게도 약자복지 실현과 공정한 성장의 기회를! 만 2세 이하 예방접종 미접종 아동 전수조사 등 누수 없는 아동 복지

- 학대 당하는 아이를 일찍, 촘촘히 발굴하기 위한 '만 2세 이하 필수 예방접종 미접종 아동 전수조사' 실시
- 형편 어려운 아이들도 일찍부터 저축할 수 있도록 아동저축상품인 '아동발달지원계좌(디딤씨앗통장)' 가입연령 확대
- 주민번호 없는 '유령아이'을 막기 위해 '출생통보제' 도입

정부는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(4.13.)하여 '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'을 심의·확정했습니다. 이번 추진방안에서는 아이들에게 공정한 기회 부여, 약자복지 강화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하였습니다.

'만 2세 이하' 필수 예방접종 미접종 아동 전수조사 실시

본인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만 2세 이하의 아이들은 아동학대 발견율이 낮고, 사망사건 발생 비율*이 높습니다. 정부는 학대를 당하는 아이를 일찍, 촘촘히 발굴하기 위해 필수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1년 이상 병원에 간 적이 없는 만 2세 이하 아이들을 집중조사합니다.

* 아동인구 1,000명당 아동학대 판단 건수로 우리나라 전체아동 연령의 아동학대 발견율은 5.02%, 만 2세 이하는 3.28%입니다. 미국의 경우, 전체아동 연령의 아동학대 발견율은 8.1%, 만 2세 이하는 15.1% 수준으로 나타납니다.

아동저축상품인 '아동발달지원계좌(디딤씨앗통장)' 가입연령 확대

형편이 어려운 아이들도 일찍부터 저축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가구(생계·의료급여 수급)의 모든 아이들도 아동저축상품인 '아동발달지원계좌(디딤씨앗통장)'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.

주민번호 없는 '유령아이'을 막기 위해 '출생통보제' 도입

출생신고조차 안 된 이른바 ‘존재하지 않은 아이’를 막고, 모든 아이의 누락 없는 출생신고를 위해 **병원이 출생아를 국가기관에 통보하는 ‘출생통보제’를 도입합니다.**

대규모 시설이 아닌 가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거주 환경 개선
부모의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원래의 가정에서 지내지 못하고, 가족과 떨어져 보육원과 같은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이 원가정에 돌아가서도 적응할 수 있도록 **‘원가정 복귀 가이드라인’**을 만들어 지원합니다. 이후 아이가 가정으로 돌아간 후에도 ‘보호받으며 잘 지내고 있는지’를 계속해서 확인합니다.

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‘보호아동 가정형 거주로’의 전환 로드맵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, 위탁가정에서 지내는 아이들에게 맞춤형 자립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합니다. 또한,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**심리·정서지원** 등 각종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합니다.

법정대리인이 없어 병원에서 수술을 못 받거나, 은행에서 통장개설을 할 수 없는 일들이 없도록 보호대상아동의 **위탁부모에게 법정대리인 권한을 일부 부여**하고, **아동복지·의료·금융·법률 전문가를 공공후견인으로 연계**할 수 있도록 후견제도를 개선합니다.

모든 아이의 성장·발달에 필요한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지원
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집에 직접 방문하는 ‘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’을 2027년까지 전국 확대합니다.

코로나19를 거치며 마스크로 인해 입 모양을 볼 수 없어 아이의 언어 발달이 느리다고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.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

팬데믹 기간과 관련 언어는 물론 인지·사회성 발달 등 **‘아동 발달지연 실태조사’** 실시해, 결과를 토대로 **향후 지원방안을 마련**할 계획입니다.

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**‘정신건강 실태조사’**의 대상이 **성인에서 ‘6세 이상 아동’으로 확대**됩니다.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동·청소년 자살예방과 정신건강대책을 수립(2026년)할 계획입니다.

정부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강화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해 약자 복지를 실현하고, 아동 관련 주요 정부위원회에 아동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위원을 선임해 아이들을 중심으로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.

정부는 아이들의 성장·발달에 필요한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모든 아이가 공정한 기회를 가지며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.

* 본 내용은 2023년 4월 13일 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‘공정한 성장 기회, 두텁고 촘촘한 아동복지, 윤석열 정부가 실현합니다.’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.